



팜터 시티 10

삼천리전자 첫 전동 스쿠터 출시

자전거 전문 기업 삼천리전자(대표이사 신동호)가 언택트 이동 수단의 대중화를 위해 첫 전동 스쿠터 '팜터 시티 10'을 출시했다. 일반 오토바이형 스쿠터는 제품 등록, 보험 가입 등 이용 시 필요조건이 많고 조작이 복잡하지만, 전동 스쿠터는 스로틀 전기자전거와 같이 편리한 조작하면 바로 주행 가능하다. '팜터 시티 10'에는 보쉬(BOSCH)사의 고성능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 장시간 주행에도 무리가 없다. 또한 14인치 광폭타이어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듀얼 스펀션을 장착해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 도심 주행에 필요한 대형 헤드라이트, 바구니, 보조안장도 기본으로 적용했다. 전동 스쿠터이지만 페달도 장착되어 있어 전력 공급이 되지 않을 때도 자력으로 주행할 수 있게 제작했다. 1회 충전 시 최대 45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권장소비자 가격은 89만원.



빔, 전동 킥보드 안전교육 진행

전동 스쿠터 공유 플랫폼 서비스 기업인 빔(Beam)은 11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 바이크 스쿨에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인 '빔 안전 주행 아카데미'를 개최(사진)했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빔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확산에 발맞춰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운행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빔 안전 주행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도 민관 합동으로 개최되는 안전교육의 첫 사례다. 빔 안전 주행 아카데미 교육에는 알렌 지양 빔 대표와 이장훈 강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강동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구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망

8756만대 → 7000만대 '쇼크'

〈2019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

〈2020년 예상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2019년보다 20%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충격이 더 크다는 것이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의 분석이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년 대비 약 20% 감소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은 10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망'을 주제로 한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세미나에서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7000만대 초반 규모로 2019년(8756만대) 대비 약 20%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회복 속도 역시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5.2% 급락했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불과 2년 만인 2010년 +3.8%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2020년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2022년에도 여전히 -4%대에 머물고, 2023년에도 2019년 판매량

자동차 시장 약 20% 감소 전망
전 지역 동반 침체...회복 더뎠다
차 산업 비대면 트렌드로 변화

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기 때는 신흥국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자동차 대중화로 인한 수요 증가 때문에 회복이 빨랐지만, 이번에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동반 부진에 빠져 있어 완충지대가 없다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선진국의 산업수요는 -800만대 이상, 신흥국의 산업수요는 -600만대 이상으로 전 지역이 동반 침체에 빠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2023년 이후에나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시장 트렌드 변화는?

이보성 연구소장은 21세기가 코로나19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만큼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

차 산업에서는 탈 세계화, 비대면·비접촉의 일상화, 커넥티비와 자율주행 등 비대면 트렌드의 확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수요 측면에서는 위생과 전염에 대한 각인 효과 및 잠재적 감염에 따른 우려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성장 속도는 감소하고, 단독 이용과 위생 관리가 용이한 방향으로 자동차 이용 행태의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은 34% 감소했고 미국 우버의 카풀 서비스는 중단됐으며, 호출형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의 카셰어링 서비스 수요 역시 70%나 급감했다.

이소장은 "이처럼 경제성 중심에서 개인성과 비대면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수요 변화가 이뤄지면 구독형 차량서비스나 장기 렌트카 등 점유형 모빌리티 서비스로 수요가 이동하고,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마이크로모빌리티가 부상하는 한편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인해 사물이동(물류·배송)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자동차

스포츠동아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13



기아차, 대학생 서포터즈 3기 모집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아차의 미래 함께 고민
내달 2일까지 레드 크리에이터 홈페이지 접수

기아자동차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아자동차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대학생 서포터즈 '레드 크리에이터' 3기를 모집한다.

2018년 출범한 '레드 크리에이터'는 대학생들이 기아차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실무에까지 적용해보도록 함으로써, 기아자동차와 대학생들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장기 서포터즈 프로그램이다.

올해 8월부터 약 4개월간 활동할 이번 기수는 코로나19 이슈를 고려해, 모집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1, 2기가 팀별로 희망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던 것과 달리, 이번 레드 크리에이터 3기는 사회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아차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메인 미션과 기아자동차의 차량을 활용해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자동차 문화 변화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서브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협업 멘토링과 소통 프로그램은 한층 더 강화됐다. 팀별 1:1 실무 멘토링은 유지하면서 외부 전문가 특강인 '유레CAR 아카데미'를 보완해 보다 전문성 있는 현직 자동차 에디터와 영상 전문가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기아차는 참여 대학생 전원에게 매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11월 '팬션 시상회' 발표 결과물을 토대로 우수 두 팀을 선정해 총 700만 원의 장학금(최우수팀 500만 원, 우수팀 200만 원)을 수여한다. '레드 크리에이터' 3기는 8월 2일까지 레드 크리에이터 홈페이지(www.kia-redcreator.com)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최대 54km 전기 주행...BMW '뉴 X5 xDriver45e' 사전 계약

km당 이산화탄소 배출 43g 친환경
xLine·M 스포츠 두 가지 트림 출시

BMW 코리아(대표 한상윤)가 최신 BMW e-드라이브(eDrive) 기술이 적용되어 우수한 연료 효율과 긴 전기모드 주행거리를 제공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AV인 '뉴 X5 xDrive45e'의 사전계약을 실시한다.

다음 달 국내 출시 예정인 뉴 X5 xDrive45e는 플래그십 SUV 모델인 뉴 X5 특유의 고급감과 활용성에 더해 전기모드 주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뉴 X5 xDrive45e에는 이전 세대 모델 대비 용량이 두 배 이상 큰 배터리가 탑재되어, 최대 54km(국내 인증 기준)까지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주행할 수 있다. 이는 BMW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 중에서 가장 긴 순수전기모드 주행가능



BMW 코리아는 다음 달 국내 출시 예정인 '뉴 X5 xDrive45e'의 사전계약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 BMW 코리아

거리다.

친환경성도 갖췄다. 394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합산 출력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43g에 불과하다. 국

내에는 뉴 X5 xDrive45e xLine과 뉴 X5 xDrive45e M 스포츠 등 총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예상 가격은 1억1300만 원~1억2100만 원이다.

원성열 기자

www.infodb.co.kr

아는 사람 부탁으로 마지못해 가입한 보험들 보장내용도 잘 모르고, 보험료도 부담스러우십니까?

비교진단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내 인생이 걸린 보험. 모든 보험을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하셔야죠?
선진국 방식의 획기적인 보험 '비교진단' 서비스 - 에프엠에셋.
대한민국에 등록된 수많은 보험사들의 모든 보험을 비교진단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막아주고, 꼭 필요한 보장은 짚박 채워줍니다.



보험전문가 에프엠에셋의 맞춤형 해결법!

- 노후대책을 위해 나에게 딱 맞는 '연금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중신보험'은 어떻게 드는 게 좋은지?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꼭 필요한 '간병보험'은 어떤 게 유리한지?
- 보험을 통한 '절세 노하우'까지?

보험은 FM대로! 에프엠에셋의 비교진단 설계!

- 동일한 보장에 보험료는 저렴한 상품을 찾아주고!
- 중복가입으로 줄출 낭비되는 보험료는 막아주고!
-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암보험을 찾아주고!
- 나에게 꼭 맞는 노후보장 대책도 세워주는 비교진단 설계!

이미 가입한 보험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도
보험전문가가 '비교진단'해 드립니다.



FM에셋

24시간
무료상담

080-235-0119